

# 러시아 정부경쟁력 제고를 위한 변수로서 시민참여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 정부만족도, 사회신뢰, 언론매체이용 특성을 중심으로 —<sup>\*</sup>

임도빈<sup>\*\*</sup> · 정지수<sup>\*\*\*</sup> · 김윤호<sup>\*\*\*\*</sup>

## 1. 서론

공산권이 붕괴된 이후 세계화는 급격하게 진행되었다. 세계화 이후 정부 역시 다른 나라와 비교 대상이 되면서 각 국가들은 정부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 특히 민주주의 체제에서는 시민의 참여나 의견에 대해 대응적인 정부를 구현하고자 시민지향적인 정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러시아 역시 정부경쟁력 향상을 위해 2001년부터 정부개혁을 추진하고 있는데, 특히 2002년에는 ‘러시아 연방의 공공서비스 개혁’의 개념을 발표하였다. 하지만 러시아의 행정개혁의 결과는 성공적이라고 말하기 어려운데, 그 근본적인 이유는 러시아의 정치체제와 행정체제가 제도적 불안정성으로 인해 중앙집권화의 속성(행정부의 입법부 장악)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된 바 있다(임도빈 · 정지수 · 신혜영 2012).

한편 Solomon(2008)은 관료들의 사익추구현상을 지적하면서 과거 소비에트 시절부터 지속된 전통으로 인해 권력을 이용한 부패현상이 만연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는 제도보다는 사람중심의 정부운영 전통이 남아있다는 것

---

\* 이 논문은 2011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1-330-B00195).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주저자).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박사과정(교신저자).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과정(공동저자).

을 의미한다. 사람에게 권력이 집중되면서 관료들의 부패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경쟁력에는 그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만족과 신뢰여부가 결정적 변수이다. 그런데 러시아 시민의 국가기관에 대한 불신은 심각한 상황이다. 아래의 <표 1>은 본 연구에서 사용한 유럽사회조사<sup>1)</sup>의 2010년 데이터에서 분석한 것으로 신뢰정도를 ‘매우불신(0)~매우신뢰(10)’의 단계로 측정한 것이다. 평균 신뢰정도가 4점 미만으로 대부분의 국가기관에 대해서 불신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1> 러시아 시민들의 국가기관 신뢰수준

	관측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의회신뢰	2424	3.5796	2.7626	0	10
사법부신뢰	2416	3.8063	2.7795	0	10
경찰신뢰	2482	3.5359	2.7619	0	10
정치인신뢰	2408	3.0951	2.5488	0	10
정당신뢰	2397	3.1114	2.5483	0	10

이에 반해 러시아는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Sapsford and Abbott 2006). 특히 푸틴의 경우 옐친 시대의 혼란과 무질서를 극복하고, 소련시절의 국가위상을 일정정도 회복시켰다는 평가와 함께 3선에 성공하였다(장세호 2012). 하지만 푸틴의 3선과 그 이전 총선에서의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이 불거지면서 러시아 민주주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러시아의 투표제도, 정당의 작동방식과 같은 절차적 민주주의가 공고화 되고 있을 지라도 선거의 공정성, 시민참여의 활성화와 같은 실질적 민주주의는 확립되지 못한 것도 이러한 민주주의 위기 여론을 확대시키고 있다(류진숙 2010).

러시아 민주주의의 위기의 원인은 러시아 시민사회의 미발달에서 찾을 수 있다. Fish(1999)는 탈공산주의 국가의 민주화 성공여부를 결정하는 주요 변수로 시민사회의 역할에 주목하면서, 폴란드 등 민주화가 성공적으로 진행된

1) 유럽사회조사(ESS: European Social Survey)는 2년마다 서베이를 진행하며, 유럽 36개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연구를 수행할 당시 최신 데이터는 2010년에 보고된 자료이다. 유럽사회조사(ESS)는 World Value Survey(WVS)와 함께 주요 학회지의 논문에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유럽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의 펀딩으로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http://ess.nsd.uib.no/ess/round5/>(검색일: 2013.10.15).

국가는 발달된 시민사회 구조를 갖고 있으나, 러시아 등 반민주주의(semi-democracy) 국가들은 시민사회의 힘이 전자의 국가보다 취약함을 주장했다.

러시아 시민사회의 발달이 취약한 원인으로는 1990년대 체제전환 초기, 극심한 경제위기 속에서 자발적 시민사회운동이 약화되었던 것을 들 수 있다(강윤희 2012). 그리고 전통적 정치문화의 차이가 이를 설명할 수 있다(장덕준 2007). 척박한 토양, 추위와 같은 혹독한 환경에서 러시아인들은 개인적인 권리와 의무보다는 집단적인 가치를 더욱 중시하였고, 이는 전통적으로 국가에 대한 의존심리를 갖도록 만들었다. 시민사회는 국가와의 관계와 상호작용 속에서 발달하는데, 러시아는 이러한 전통의 영향으로 시민사회의 발전이 더딘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서구시민사회의 문화가 유입되면서 러시아 시민사회는 역시 변화하고 있을 것이다. 정부에 대해 만족하지 않을 때, 이를 무시(neglect)하는 경우 시민사회의 미발달이 미치는 영향이 여전히 큼을 알 수 있지만, 항의(voice)하는 형태나 대안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에는 시민사회의 발전이 진행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유럽사회조사 자료를 통해 정부에 대한 불만족이 시민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통계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 2. 선행연구

### 2.1. 시민참여의 개념과 유형

건전한 정부경쟁력은 정부 혼자만의 노력이 아니라 시민의 참여를 통해서 만들어진다. 공산정권의 붕괴 이후 시장경제와 민주주의로 체제가 전환되면서 시민참여가 시작된 러시아에서는 시민참여가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구소련 내에서도 노동조합, 여성단체, 문화단체, 전문직 단체 등을 통한 사회참여가 이뤄졌으나, 이들 조직은 국가나 당에 종속된 채 자율성을 갖지 못했다(박수현 2010). 하지만 소련의 붕괴로 비로소 사회유대관계가 풍부해지게 되고, 이는 다시 시민이 정치, 사회에 활발히 참여할 수 있는 계기 형성을 위한 기반이 되었다(Diamond 1994).

참여란 어떠한 일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그

의사결정에 간섭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Huntington and Nelson (김학준 역 1977: 4)은 이와 유사하게 정치참여를 “정부의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려고 의도하는 일반 시민들의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시민참여가 정부의 경쟁력을 향상시킨다.

이러한 참여는 그 객체와 주체가 정해짐에 따라 그 범위와 의미가 다양하게 정해질 수 있다. 참여의 객체는 좁게는 정치에서 넓게는 일반사회영역으로 확장될 수 있다. 이는 참여주체가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대상의 범위가 넓어지고, 좀 더 다양한 형태의 참여로 나아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정치참여를 시민참여와 구분하지 않고, 시민에 의한 정치참여로 보아 두 개념을 같게 보는 경우도 있으나(김혜정 2012), 참여의 대상이 정치에만 한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두 개념은 구분해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Putnam (1995) 또한 사회자본에서 고려하는 시민참여를 정치참여보다 넓은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다.

기존에 제시된 시민참여와 정치참여의 개념들은 위와 같은 기준에서 누적적으로 정리될 수 있다. 가장 좁은 의미의 시민참여로 전형적이면서 전통적 방법인 투표참여를 들 수 있다. 하지만 투표참여가 시민참여를 설명하는 것은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선거운동이나 정치인과의 접촉, 시위 등 다른 정치참여 방법을 통해서 그 사람의 활동적인 정치참여를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Krishna 2002). 또한 잉글하트(R. Inglehart)는 포스트모던사회에서 간단한 형식의 참여는 감소할지라도 적극적이고 문제지향적인 참여는 증가할 수 있다고 보았다(Petukhov 2005에서 재인용).

따라서 오늘날에는 좀 더 참여의 대상을 넓게 파악하고 있다. Verba and Nie(1972)는 투표참여 뿐만 아니라 선거운동, 집합적 활동, 공직자 접촉을 포함하여 정치참여를 설명하고 있으며, Milbrath and Goel(1977: 2)은 이에 더해 정부에 대한 지지나 의례적 활동과 같은 비자발적 행위도 포함시키고 있다. 여기서 개념을 더욱 확장한다면 시민불복종운동, 정치적 폭력 활동과 같은 불법적 행위까지도 포함할 수 있을 것이다(Barnes and Kaase 1979; 김혜정 2012에서 재인용).

시민의 참여행위를 정치행위에 한정하는 기존의 연구들은 정부 영역을 벗어난 시민의 참여활동을 포함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지역사회의 행정·정책으로 참여의 범위를 한정시키는 경우(조현석 2009) 역시 시민사회의 다양한 참여양태를 포함시키기 어렵게 된다. 따라서 시민참여는 자발적이고 자율

성 있는 참여행위로서 비정부조직(NGO)에 대한 사회참여활동이나 공공재의 생산과 배분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시도까지 포괄할 필요가 있다(Booth and Seligson 1978; Putnam 2000; Verba Schlozman and Brady 2001).

최근 러시아에서는 부정선거 의혹으로 대규모 시위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시위는 정부에 대한 불만족을 표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불만족을 표출하는 시민참여의 양태는 이외에도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의 참여는 그동안 논의되어왔던 제도적 차원의 참여(투표)를 제외하고 정치정당 및 행동조직참여, 표/배지/스티커 나눠주기, 서명/청원, 법적 집회 참여, 보이콧 등에 참여하였는가의 여부를 통해 보다 적극적인 의미를 포함한다.

## 2.2. 정부만족과 참여

세계의 많은 정부들이 정부경쟁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을 시민들에게 평가하기 위해 정부만족도를 조사하고 있다. 정부에 대한 만족도의 측정은 특정 기관의 고객만을 대상으로 하는 고객평가와 전반적인 행정에 대해 시민일반에게 평가받는 시민평가로 구분될 수 있을 것이다(김병준 1988: 14-16; 박기관 2009에서 재인용). 먼저 고객평가는 신공공관리 행정 개혁을 통해 고객 중심의 행정을 구현하는 국가들에서 주로 이뤄지고 있다. 미국의 경우 ‘American Customer Satisfaction Index’, 캐나다의 경우 ‘Canadian Common Measurements Tool’, 영국의 경우 ‘People’s Panel’을 통해 정부의 만족도를 측정하고 있는데, 이는 공적 개별 서비스에 대한 고객평가로 볼 수 있을 것이다(Kampen, De Walle and Bouckaert 2006). 이러한 국가단위의 정부만족도 평가 외에 국가 간의 비교를 위해 연구기관에서 시민의 일반적인 인식을 조사하는 경우도 있다. 이 글에서 활용하는 유럽사회조사 역시 이러한 조사 중 하나이다.

여러 논문이나 조사에서 러시아 정부에 대한 시민의 만족도가 낮게 나타나고 있다. 다만 정부만족도는 주관적인 지표라는 점에서 일정한 경향성을 보일 수 있다. 지금과 같은 불만족이 나타나는 것이 러시아 사회의 한 경향일 수도 있는 것이다. Hirshman(1970)에 의하면 정부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독점적 공급자이기 때문에 고객인 시민은 높은 불만을 갖게 된다고 한다. 이는 Fornell and Didow(1980)가 경쟁적 시장일 때보다 독점시장일수록 고객은

더 많은 불만을 갖는다고 예측한 것과 일치한다. 러시아 행정부의 집권적인 변화가 독점적 공급구조를 심화시켰다고 시민들이 인식한다면 불만족이 커질 수도 있는 것이다.

하지만 러시아의 정부개혁을 통한 행정서비스의 양적, 질적 확대가 반대의 경우를 가져올 수도 있다. 사기업의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 즉각적으로 대가를 지불하지만, 일반적인 공공서비스의 경우 즉각적인 대가를 지불하지 않기 때문이다(Roth and Bozinoff 1989). 이는 다양한 조세체계와 원천징수로 세금부담을 과소인식하게 된다는 재정환상(fiscal illusion)과 그 맥락을 같이 한다.

이러한 경향성은 정부에 대한 시민의 기대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정부에 대한 기대는 나아가 러시아 민주주의에 대한 기대와 관련 있을 것이다. 서구식 민주주의적 견해에서 본다면, 삼권분립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러시아 민주주의는 성숙하지 못한 것이다. 하지만 푸틴이 주장하는 ‘주권민주주의’<sup>1)</sup> 입장에서 본다면 오늘날 러시아의 민주주의는 타당하다고 인식할 수도 있다. 이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중요하다. 러시아의 경우 다양한 연구결과나 국제조사 결과에서 정부에 대한 만족도가 낮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지난 소비에트 정부 시절과 비교를 했을 때 그 시절이 오히려 더 나았다고 인식하고 있다(Sapsford and Abbott 2006). 소비에트 시절보다 정부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고, 그 성과가 낮다면 이러한 인식은 타당할 것이지만, 서비스의 질이나 성과가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만족도가 다르다면 이는 기대수준이 달라서 나타나는 차이일 수 있다. 만족도는 단순히 정부서비스 질이나 성과에 대한 인식 외에도 기대수준이 얼마나 충족되었는지를 평가하는 주관적인 지표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Van Ryzin 2004).

일반 기업의 고객이라면 서비스의 만족, 불만족에 따라 지속적으로 구매하거나(loyalty), 구매를 포기(exit)하는 행태를 보일 것이다. 하지만 독점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의 경우 구매를 포기할 수 없다. 따라서 불만족하는 부분에 대해 항의(voice)하거나, 항의할 여건이 안 되는 경우 자신의 불만족을 무시(neglect)하는 행태를 보이게 될 것이다(Rusbult Zembrodt and Gunn

1) 외부의 개입을 차단하면서 자주적이고 독자적인 방식으로 추진되는 민주주의의 형태. 푸틴이 2005년 4월 국가두마 국정연설에서 “러시아는 역사적 및 지정학적 특징에 기초해서 자신만의 민주주의 경로를 선택할 권리를 갖는다.”고 하는 것에서 기원을 찾을 수 있다.(이영형 2009)

1982). 즉, 정부에 대한 불만족하는 경우라도 시민사회의 성숙 등으로 항의할 여건이 갖춰진다면 정치참여 내지 사회참여를 통해 정부에 대한 요구(voice)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설1: 정부에 대한 만족도가 낮을수록 시민들의 사회참여가 많아질 것이다.*

### 2.3. 사회신뢰와 참여

신뢰는 주관적인 믿음으로 한 개인과 신뢰할 수 있는 대상과의 지속적인 관계에서 형성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Giddens(1990: 122-127)에 따르면 신뢰는 한 사회가 유지하고 발전하는데 필수적인 자원으로 개인이 사회적으로 행동해야 할 지침을 제공해준다. 그리고 신뢰는 적용대상에 따라 ‘사람에 대한 신뢰’와 ‘제도에 대한 신뢰’로 구분할 수 있다고 하였다. 유석춘·장미혜(2002)는 사람에 대한 신뢰를 미시적 신뢰로, 제도에 대한 신뢰를 거시적 신뢰로 구분하고 있다.

기존의 많은 연구들은 거시적 신뢰라 할 수 있는 정부신뢰 내지 정치신뢰가 정치참여에 영향을 주는가를 검토하였다. 미시적 차원에서 대인간의 신뢰가 정치참여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는 연구가 미흡한 상태이다.

‘사람에 대한 신뢰’는 일상적인 사회생활에서 상대방에 대해 갖게 되는 신뢰를 의미하며, 이러한 대인적 관계가 반복·누적되고 정형화되는 경우 그러한 관계는 ‘제도화’될 것이다. 이러한 제도는 특정한 상황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에 대한 지침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된다. 제도화된 신뢰는 타인의 행동에 대한 예측가능성으로 불신에서 오는 거래비용을 낮출 수 있다.

Fukuyama(1999:36)는 사회자본을 “협동을 전제로 한 집단 구성원 간에 공유되고 있는 비공식적 가치기준이나 규범이 집합”이라고 정의하며, Putnam(1995)은 “상호호혜를 위해 협력과 조정을 촉진하는 네트워크, 사회신뢰, 규범과 같은 사회조직의 특성”으로 제시한다. 사회신뢰는 이러한 사회자본의 핵심변수로서 사회신뢰를 직접적으로 활용한 연구보다 사회자본을 통해 사회참여를 검토한 연구가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다.

Tocqueville(1984)은 민주주의에 있어 사회자본이 기반이 되는 시민사회가 필수적이라 보았으며, Putnam(1993) 역시 다양한 결사조직과 이들 간의 교호작용을 통한 사회자본 구축은 민주주의의 핵심요소라고 보았다. 실증 연구결과들을 살펴보면, Lake and Huckfeldt(1998)는 1992년 미국 대선에서 개인의 네트워크 규모와 강도, 정치적 전문성을 통해 측정된 사회자본이 선거 캠페인 참여에 미친 영향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사회자본이 많은 개인이 선거 캠페인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996년 대통령 선거를 연구한 Loflin(2003; 이영수·이재신 2009에서 재인용)의 결과도 연결망 내의 상호작용이 정치참여를 높이는 효과를 가져왔다고 한다.

위와 반대로 사회자본이 오히려 정치참여를 감소시킨다는 주장도 존재한다. Putnam(2000)은 사회자본을 결속적 사회자본(bounding social capital)과 교량적 사회자본(binding social capital)로 나누는데, 집단 내의 결속적 사회자본이 강한 경우 타 집단에 대한 배타성이 커져 정치참여를 감소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 이와 유사한 연구 결과로 Norris(1996)는 실증연구를 통해 사회자본과 정치적 자본의 상호의존성이 약하다고 보았다. 국내의 경우 박희봉 등(2005)은 신뢰의 유형과 단체의 종류에 따라 정치참여에 대한 영향이 상이하게 일어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Teixeira(1992)는 개인의 정치참여에 중요한 요인으로 사회적·정치적 연계성을 들고 있는데(이영수·이재신 2009에서 재인용), 이는 시민 개개인의 사회적 연계성이 사회 일반의 신뢰로 연결될 경우 시민의 참여가 활성화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러시아는 추운날씨와 오랜 집권적 통치, 러시아 정교문화로 인해 사적신뢰와 수직적 신뢰에 따른 폐쇄적 네트워크를 강조해왔다(장덕준 2007). 따라서 결속적 사회자본이 강화되어 사회참여가 활성화되지 않았을 수 있다. 하지만 러시아 사회의 개방과 자유화가 진행되면서 개인주의, 상호신뢰, 참여와 같은 서구적 정치문화가 도입되었다. 이러한 서구식 민주주의가 영향을 미쳤다면 교량적 사회자본이 축적되어 사회참여가 활발히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가설2: 사회신뢰가 높을수록 시민들의 사회참여가 많아질 것이다.**



## 2.4. 언론이용과 참여

시민들의 사회참여는 신문, TV 등의 언론매체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정부신뢰는 인터넷 등 매체의 이용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결국 정부경쟁력을 좌우한다(Im et al 2012).

신문구독과 관련하여 Putnam(1993)은 북부 이탈리아의 높은 신문구독률이 사회자본 축적을 용이케 하였다고 분석한다. 사회자본의 축적이 시민의 사회참여를 활발하게 한다고 본다면 신문구독과 시민참여는 정의 관계를 보일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Shaffer(1981)는 미국의 선거 투표율 하락의 원인이 신문 읽기의 감소에 기인한다는 결과를 제시하였고, Simon(1996)은 미국 대선에서 신문이용이 투표참여 예측에 유의미한 변인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 글에서 개념화한 적극적 의미의 참여와 일치하지는 않지만 신문매체를 이용하는 것이 정치와 사회에 대한 관심이라는 점은 동일할 것이다.

신문은 수용자들의 정치 신뢰감(Becker and Whitney 1980)이나 정치 효능감(Miller and Reese 1982), 그리고 정치 참여(McLeod and McDonald 1985)와 정적인 관계에 있다는 연구결과도 존재한다.

텔레비전과 정치참여에 관한 연구들은 서로 다른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다. 먼저 텔레비전 이용이 정치참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들을 보면, 텔레비전이 유권자들의 정치 무관심과 냉소주의를 부추기고(Robinson 1976), 텔레비전 시청시간이 길수록 사람들의 사회활동이나 시민생활 참여의 정도가 낮아진다는 것이다(Norris 1996). Putnam(1995) 또한 텔레비전을 참여 행위 쇠퇴의 주범(culprit)으로 지목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과는 반대로 텔레비전의 이용이 정치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들도 있다. McLeod and McDonald(1985)는 공공문제에 대한 지식과 정치적 효능감, 나아가 정치참여와도 긍정적인 관계가 있음을 밝혀냈고, 미국의 타임스 미러 센터(Times Mirror Center 1990)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텔레비전과 라디오의 뉴스 프로그램을 빈번히 이용하는 사람들이 선출직 공직자에게 탄원서를 보내는 등 정치참여 활동에 더욱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미디어가 등장함에 따라서, 최근에는 인터넷 미디어가 정치참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초기

의 몇몇 연구들은 개인의 인터넷 이용정도와 정치적 신뢰 및 정치 참여의 정도 간에는 유의미한 관계가 없음을 보여준다. Katz and Aspden(1997)의 연구는 인터넷을 많이 사용한 사람이나 적게 한 사람 간에는 투표를 포함한 실제 정치적 행위에 있어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음을 밝혀냈다. 이와 반대로 인터넷 매체 이용이 사람들의 정치활동의 참여를 촉진시킨다는 연구도 있다. Berman and Weitzner(1997)는 인터넷이 기존의 전통 매체가 해내지 못했던 다양한 견해와 정보 교환을 가능하게 해주고, 온라인 대화 참여, 웹사이트 개설, 메일링 리스트 구축 등이 수월해져 개인이나 단체는 이슈가 발생하자마자 새로운 연합체를 구성할 수 있게 됐다고 주장했다.

러시아의 경우 2014년 말 성인 인구의 71%가 인터넷을 사용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을 정도로 인터넷 발전 속도는 비약적이다. 하지만 ФОМ의 2007년 여론조사에 따르면, 러시아인들은 여전히 가장 중요한 뉴스정보원으로 61%가 텔레비전을, 22%가 신문을, 13%가 라디오를, 4%만이 인터넷을 꼽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오원교 2011에서 재인용)<sup>2)</sup>. 이 결과는 러시아 시민들에게 여전히 텔레비전과 신문이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러시아의 언론매체가 시민들에게 긍정적인 정보를 많이 제공하고 있다면 시민들의 정치참여 내지 사회참여는 미디어의 발달과 함께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설3: 언론매체(신문, 텔레비전, 인터넷)를 자주 이용할수록 시민들의 사회참여가 많아질 것이다.*

## 2.5. 통제변수

공공조직과 민간조직은 경영관리 방식에 있어서 유사하다는 주장(Murray 1975)이 있는 반면에 Sayre(1953:102)는 공공조직과 민간조직이 “모든 중요하지 않은 면에서 기본적으로 유사하다”라고 주장하면서 공공조직과 민간조직의 차이점을 제시하였다.

공조직(public sector)과 사조직(private sector)을 비교한 많은 경험적 연구들

2) <러시아에서 인터넷>라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2010-11년 겨울 ФОМ(Фонд «Общественное Мнение»)에서 실시된 통계조사 결과, 러시아 전체 인터넷 사용자는 18세 이상 성인 인구의 43%에 해당한다고 한다(오원교 2011에서 재인용).

에서 공조직의 구성원들은 사조직의 구성원들과 동기(motivation)구조에 차이가 있음을 보이고 있다. 즉, 사조직 구성원에 비해 공조직 구성원들은 금전적 보상과 같은 외재적(extrinsic) 유인에 의한 동기부여보다 직무에서 의미를 찾는 것과 같은 내재적(intrinsic) 유인에 의해 동기부여가 이루어진다고 보는 것이다(Rainey and Bozeman 2000). Perry and Wise(1990)에 의하면 공공조직 구성원들은 “공직동기(public service motivation)”를 통해 동기부여를 받는다고 한다. 이는 합리적 차원에서 공공정책호감도(attraction to policy making), 규범적 차원에는 공익몰입(commitment to public interest), 정서적 차원에서는 동정(compassion)과 자기희생(self-sacrifice)으로 구분된다.

Perry and Wise(1990)의 공직봉사동기(PSM) 이론에 따르면 공공부문 종사자는 민간부문 종사자에 비해서 사회와 공공부문에 대한 관심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이 참여자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는 명확한 이론적 설명이 없다. 공직에서 일하는 사람일수록 정부에 대해서 긍정적이어서 사회참여를 적게 할 수도 있고, 행정부의 특성상 사회참여를 자제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반면 민간부문 종사자는 공공부문의 규제에 대해서 비판적인 경우가 많으므로 사회참여를 통해 정부를 비판하거나, 견제하려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러시아 사회의 부패 문제가 심각하다는 많은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이는 달리 말하면 러시아 공무원의 공직봉사동기가 낮은 탓일 수도 있다. 만일 그렇다면 공공기관종사여부와 무관하게 사회참여가 나타날 것이다. 이러한 것은 오히려 공직봉사동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증거 또한 될 수 있을 것이다.

시민참여의 영향요인은 다양하다. 이승중(2011)은 기존의 선행연구들을 소개하면서 시민참여의 영향요인을 설명한 바 있다. Milbrath and Goel(1977)은 참여자의 인식, 개인적 특성, 교육, 연령 등의 사회경제적 요소, 정치, 경제, 사회체제 등을 제시했으며, 페리 등(Perry et als)은 개인적, 집단적 자원, 직업, 가치관, 사회이념을 제시했다.

Verba and Nie(1972: 236-251)는 성별에 따라서 정치참여의 수준이 달라지는가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하였고, 대체로 남성이 여성보다는 조금 더 활발하게 참여한다고 보았다. 하지만 이러한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에 대해서는 명확한 설명이 없으며, 성별의 변수를 매개변수로 고려하는 정도의 시도가 있었다.

또한 지역사회 수준에서 만족도를 측정한 Nie et al(1969: 811)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자신들의 지역에 중요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면 공직자 접촉

과 같은 참여는 재량적 행위가 되고, 이 경우 참여는 시민의 기대, 기호, 시민지향성, 정치적 자원 등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았다.

Miller and Reese(1982)는 민주적 형태의 시민참여는 정치효능감과 심리적 관여변수의 영향을 받고, 공격적 형태의 참여는 정치효능감은 낮지만 정치에 대한 심리적 관여가 높을 때 발생함을 제시하여 개인의 심리적 변수를 강조한다. Kenny(1993)는 사회경제적 지위, 나이 등의 특성과 함께 정치효능감이 나 정치적 관심 등 개인의 심리적 관여 요인과 같은 개인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을 영향요인으로 제시한다(김혜정 2012).

### 3. 데이터와 분석모형

#### 3.1. 데이터

이 연구에서 사용할 데이터는 유럽사회조사 2010이다. 유럽 27개국에 대해서 동일한 설문지로 조사를 진행했으며, 이 연구에서는 이 중에서 러시아 조사 자료를 사용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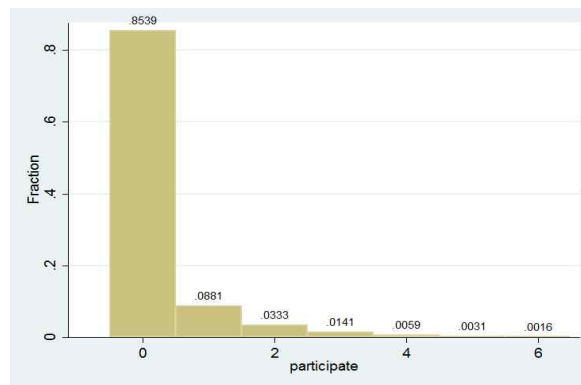
<표 2> 주요변수의 기술통계량

	변수	관측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종속 변수	참여 (participate)	2553	0.246	0.719	0	6
	정부만족도 (satis_gov)	2494	4.521	2.522	0	10
	사회신뢰 (social_trust)	2483	13.420	6.116	0	30
독립 변수	TV시청시간 (tv)	2567	4.807	2.115	0	7
	신문읽는시간 (newspaper)	2558	0.985	1.242	0	7
	인터넷사용시간 (internet)	2580	2.860	3.155	0	7
	공공부문종사자(public)	2594	0.838	0.368	0	1
통제 변수	투표여부 (vote)	2332	0.687	0.464	0	1
	종교적 (religious)	2550	4.685	2.748	0	10
	남성 (male)	2594	0.410	0.492	0	1
	나이 (age)	2594	46.419	18.491	15	94
	교육수준 (education)	2594	4.381	1.923	0	8

### 3.2. 분석모형

이 연구의 종속변수는 <그림 1>의 히스토그램과 같이 0에 응답표본이 집중된 형태(corner solution response)를 나타내고 있다. 이 경우 OLS 회귀 모형의 기본가정인 정규분포를 충족할 수 없다.

<그림 1> 종속변수의 히스토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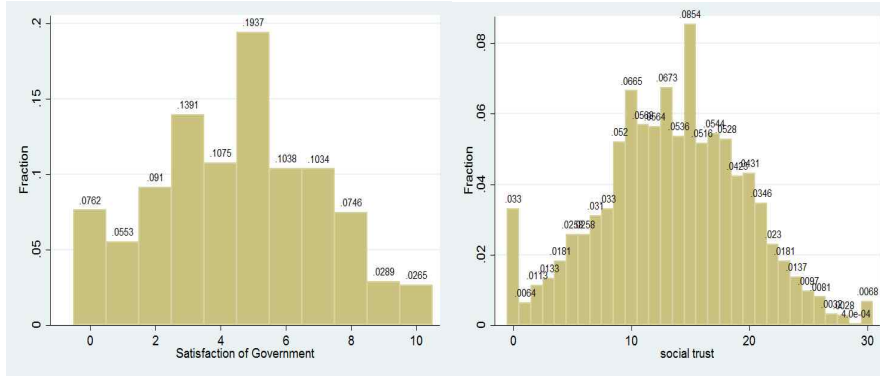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포아송(Poisson)회귀분석을 실시할 것이다. 포아송 회귀 모델은 종속변수가 카운트(count) 형태의 경우로서, 양의 정수의 집합({0, 1, 2, ...})으로 구성된 경우이다(Wooldridge 595-598; Gujarati 680-681) 이에 따라서 이 연구의 추정모형은 다음과 같다.

$$\begin{aligned}
 Y(\text{참여}) = \exp(\beta_0 + \beta_1 * \text{사회적신뢰} + \beta_2 * \text{정부만족도} + \beta_3 * \text{TV시간} \\
 + \beta_4 * \text{신문시간} + \beta_5 * \text{인터넷시간} + \beta_6 * \text{투표여부} + \beta_7 * \text{신앙심} \\
 + \beta_8 * \text{공공부문종사} + \beta_9 * \text{민간부문종사} + \beta_{10} * \text{비취업} + \beta_{11} * \text{성별} \\
 + \beta_{12} * \text{나이} + \beta_{13} * \text{교육수준})
 \end{aligned}$$

## 4. 분석결과

### 4.1. 주요변수의 히스토그램

<그림 2> 주요변수의 기술통계량



4.2. 회귀분석결과

<표 3> 포아송(Poisson)회귀분석결과

	적극적 사회참여 (participate)			
	모델1	모델2	모델3	모델4
정부만족도(satis_gov)	<b>-0.100***</b> (0.0172)	<b>-0.0895***</b> (0.0178)	<b>-0.101***</b> (0.0179)	<b>-0.0903***</b> (0.0186)
사회신뢰(social_trust)	<b>0.0138*</b> (0.00708)	<b>0.0145**</b> (0.00737)	<b>0.0151**</b> (0.00732)	<b>0.0155**</b> (0.00760)
TV시청시간(tv)		-0.0806*** (0.0198)		<b>-0.0985***</b> (0.0215)
신문읽는시간(newspaper)		0.2145*** (0.0277)		<b>0.1899***</b> (0.0305)
인터넷사용시간(internet)		0.0633*** (0.0140)		<b>0.1108***</b> (0.0192)
공공부분종사자(public)			-0.2218 (0.1420)	<b>-0.2810*</b> (0.1451)
투표여부(vote)			0.5878*** (0.111)	0.5539*** (0.114)
신앙심(religious)			0.0422** (0.0170)	0.0303* (0.0175)
남성(male)			0.2001** (0.0913)	0.1022 (0.0943)
나이(age)			0.0042	0.0142***

			(0.0027)	(0.0034)
교육수준(education)			0.0738***	0.0190
			(0.0237)	(0.0253)
Constant	-0.912***	-0.974***	-1.819***	-2.005***
	(0.198)	(0.236)	(0.313)	(0.346)
Observations	2,369	2,307	2,112	2,057
Pseudo R2	0.0236	0.0509	0.0372	0.0729
LR chi2	77.01***	159.72***	121.08***	203.24***
<b>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b>				
*** p<0.01, ** p<0.05, * p<0.1				
cf. 각 모델은 러시아 10개 지역의 터미변수가 포함된 분석결과임.				

위의 <표 3>에서 알 수 있듯이 정부만족도는 4개 모델에서 모두 동일한 방향성을 나타냈다. 즉 정부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참여를 덜 한다는 것이다. 이는 정부불만족도가 높을수록 참여를 더 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모델 4의 결과를 보면 시민들의 정부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사회참여를 -0.0903(p<0.01) 만큼 덜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사회신뢰는 정부만족도와 달리 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사회신뢰와 참여와의 관계는 기존의 연구에서 나타난 것처럼 4개 모델에서 모두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신뢰가 높을수록 참여를 0.0155(p<0.05)만큼 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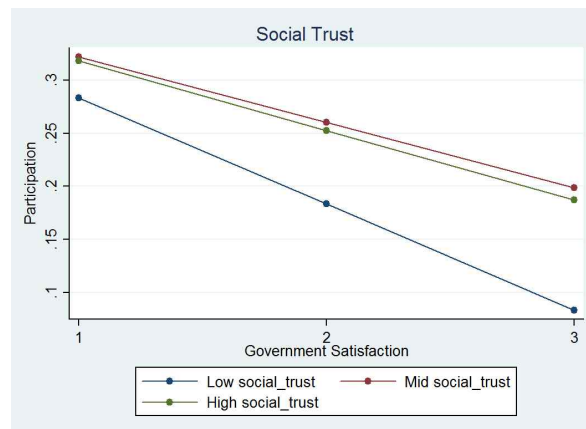
정부만족도와 사회신뢰가 참여에 반대방향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이 연구의 가설과 부합하는 결과이며, 이에 대한 해석은 매우 중요하다. 이 연구에 사용된 정부만족도는 러시아 정부경쟁력에 대한 시민들의 주관적인 인식이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시민들에 대하여 대응적인 경쟁력이 있는 정부의 모습을 보였다면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아져, 시민들의 참여는 적어지는 것이다.

여기서 참여가 정치정당 활동, 시민사회조직, 캠페인, 서명청원, 집회, 보이콧 활동으로 일반적인 활동에 비해서 적극성이 높은 참여형태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같은 참여형태가 정부에 의한 어떤 잘못된 현상에 대해서 적극적인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정부정책의 문제, 부패문제 등 정부에 대한 지지, 만족도가 낮아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사회참여를 하는 시민들이 정부에 대해서 불만족을 할 때 다른 행동을 한다는 것을 사회신뢰 변수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정부가 잘못

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서명활동을 하고, 캠페인을 하고, 집회를 하는 것은 사회참여와 시민들의 결속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다.

아래의 <그림 3>는 정부만족도와 사회신뢰의 상호작용항을 고려한 그래프이다. 통계 결과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경향을 확인할 수는 있었다. 먼저 정부만족도가 증가할수록 참여는 급격하게 감소하였다. 그런데 여기에서 사회신뢰의 역할은 정부만족도 증가에 따른 참여감소의 영향을 완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쪽의 2개 그래프가 각각 중간사회신뢰, 고사회신뢰이며, 아래의 1개 그래프가 저사회신뢰를 나타낸다. 즉, 사회신뢰가 낮은 집단은 정부만족도가 증가할수록 참여가 급격하게 감소한 반면, 사회신뢰가 중간/높은 집단은 정부만족도가 증가해도 저사회신뢰 집단에 비해서 감소의 폭이 적은 것이다.

<그림 3> 정부만족과 사회신뢰



한편, 언론매체의 특성에 따라서 흥미로운 결과를 보여준다. 신문 읽는 시간이 증가할수록 0.1899( $p < 0.01$ )만큼 참여가 증가하며, 인터넷 사용시간이 증가해도 0.1108( $p < 0.01$ )만큼 참여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TV 시청시간은 이와 반대로  $-0.0985$ ( $p < 0.01$ )만큼 참여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TV를 많이 시청할수록 참여를 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어떤 TV 프로그램을 보는가의 여부에 따른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각 언론매체의 상대적 차이에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TV가 신문



과 인터넷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사회/정치에 대한 내용보다는 흥미와 오락과 관련한 내용을 더 많이 다룬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TV를 자주 보는 사람일수록 참여가 낮아지며, 상대적으로 적극적으로 정보를 찾는 특성을 지닌 신문과 인터넷은 반대로 참여가 증가하는 결과로 나타났다. TV, 신문, 인터넷 매체에서 어떤 내용을 접하는가를 측정하지는 않은 채 단순히 매체의 특성만을 반영한 결과이므로 해석의 한계는 분명히 존재할 것이다.

연구를 확장하여 언론매체의 특성과 이용빈도가 정부만족도와 사회신뢰에 영향을 미쳐서 종속변수인 사회참여에 미치는 상호작용항을 고려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다음으로는 민간부문과 공공부문 종사자의 차이이다. 민간부문 종사자는 전체 설문자 2594명 중에서 1123명으로 43.29%를 차지하고 있다. 공공부문 종사자가 1052명으로 40.55%이며, 무직자가 419명으로 16.15%였다. 이 논문에서 사용한 공공부문종사자 변수는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사람이 민간부문에 종사하는 사람에 비해 얼마나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한 것이다. 분석 결과 공공부문 종사자가 민간부문 종사자에 비해서 참여를 덜 하는 것(-0.2810,  $p < 0.1$ )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의 모델에서 통제변수로 사용한 투표변수는 투표에 참여를 한 시민이 그렇지 않은 시민에 비해서 사회참여를 0.5539( $p < 0.01$ )만큼 더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종교적 믿음이 강할수록 참여를 더 하는 것(0.0303,  $p < 0.1$ )으로 나타났으며, 나이가 많을수록 참여를 많이 하는 것(0.0142,  $p < 0.01$ )으로 나타났다.<sup>3)</sup>

## 5. 논의 및 결론

이 연구는 ‘러시아 정부의 경쟁력이 낮은 이유는 무엇일까’라는 질문에서 출발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러시아 시민들이 정부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을 때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러시아 시민들이 정부에 직접적인 불만을 표시하

3) 이 논문의 주요변수는 정부만족도, 사회신뢰, 언론매체의 이용도이다. 통제변수에 대해서 간단히 결과만을 언급한 것은 Omitted Variable Bias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에서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고 변화를 요구할 수 있을까?’와 같은 문제의식으로 전환하였으며, 이 글은 러시아 시민들에 대한 조사 자료를 토대로 분석하여 그러한 문제들의 답을 찾고자 연구한 결과이다.

정부경쟁력은 그 나라 국민들이 정부를 얼마나 신뢰하느냐에 의한 좌우된다. Sapsford and Abbott(2006)에 따르면 러시아 시민은 정부나 의회에 대한 불신은 크지만 대통령에 대해서는 신뢰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러시아의 정치문화가 전체적 정치체제에 익숙하고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지도자에 대한 갈망이 섞여있기 때문이라 해석할 수 있다(김선래 2010). 또한 러시아의 혹독한 기후와 러시아 정교의 문화는 수직적인 신뢰와 폐쇄적인 네트워크를 강화시켜왔다(장덕준 2007). 이에 반해 개방 이후 유입된 서구정치문화는 개인주의, 권력분립, 대인간의 신뢰(사회신뢰)를 기반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문화적 차이는 사회참여에 대한 다른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상된다. 전통적 정치문화가 강한 경우, 정부에 대한 불만족이 클찌라도 항의보다는 복종(loyalty), 혹은 무시(neglect)가 나타날 개연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이 경우 적극적인 사회참여는 활발하게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이와 달리 서구적 정치문화가 강하다면 정부에 대해 불만족하는 겨우 사회참여를 통해 정부에 목소리(voice)를 높이게 될 것이다. 이러한 경향성은 사회신뢰가 낮은 집단은 정부만족도가 증가할수록 참여가 급격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에서도 볼 수 있다. 사회신뢰가 낮은 집단이 수평적 신뢰보다 수직적 신뢰를 중시하는 전통적인 정치문화 속성을 보이기 때문이다.

러시아는 지속적으로 행정개혁을 진행해오고 있음에도 각종 설문과 지표에서 나타나는 정부에 대한 신뢰나 만족도는 낮은 실정이다. 러시아의 정부경쟁력이 세계적으로 하위권에 머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행정개혁에도 불구하고, 관료들의 권력화와 사람중심의 운영으로 부패현상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개방 이후 러시아 시민들의 민주주의나 정부에 대한 기대는 서구선진사회에 맞춰져 있다. Van Ryzin(2004)은 정부서비스에 대한 기대불일치가 정부만족도에 영향을 준다고 보았다. 즉, 오늘날 러시아 시민의 정부에 대한 불만족은 이러한 기대불일치와 관련 있다 할 것이다.

연구결과 이러한 불만족은 러시아 시민의 사회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사회신뢰가 강할수록 사회참여 활발하게 나타났다. 이는 오늘날 러시아 사회에서는 전통적인 정치문화보다 서구적 정치문화가 강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에 있었던 대규모

시위는 이러한 정치문화 변화를 보여주는 일면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적극적인 사회참여는 정부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다. 정부의 정책이 보다 대응적이지 못함을 알리고 시민과의 의사소통을 통해 경쟁력있는 정부를 만들기 위한 정보를 제공해 주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회참여의 과잉은 사회를 혼란스럽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는 불만족을 낮추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러시아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국가에서 사회참여는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하지만 민주주의 제도가 정착한 국가와 달리 러시아는 각종 민주주의 지표에서 최하위권을 형성하고 있고 시민들의 정부 및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수준도 매우 낮은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민들의 사회참여는 정부에 불만을 표출하고 변화를 요구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는 점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다. 위와 같은 연구 결과는 소위 오렌지 혁명을 겪고 있는 중동 국가, 아프리카 국가 등에도 적용하여 비교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들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발전을 위해서는 정부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일 것이다(알프레드 Ho 외 2012).

자유로운 설문조사가 어려운 러시아 정치행정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제약 속에서 이 연구는 비교적 믿을만한 데이터를 가지고 모델을 만들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즉 비록 데이터상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더 정치한 분석은 하지 못하였지만, 이 연구는 러시아 시민들의 참여를 유발하는 요인이 정부에 대한 불만족과 사회신뢰라는 점을 실증적으로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러시아의 정부경쟁력에 대해 좀 더 정확한 데이터에 의한 후속연구가 요구된다.

## 부록(설문문항)

### participate(6 questions: Cronbach's $\alpha$ (0.6529))

There are different ways of trying to improve things in [country] or help prevent things from going wrong. During the last 12 months, have you done any of the following? (Yes or No)

Have you...

- (B14) worked in a political party or action group?
- (B15) worked in another organisation or association?
- (B16) worn or displayed a campaign badge/sticker?
- (B17) signed a petition?
- (B18) taken part in a lawful public demonstration?
- (B19) boycotted certain products?

### social\_trust (3 questions: Cronbach's $\alpha$ (0.7117))

- (A8) Using this card, generally speaking, would you say that most people can be trusted, or that you can't be too careful in dealing with people? Please tell me on a score of 0 to 10, where 0 means you can't be too careful and 10 means that most people can be trusted. (0-10)

- (A9) Using this card, do you think that most people would try to take advantage of you if they got the chance, or would they try to be fair? (0-10)

- (A10) Would you say that most of the time people try to be helpful or that they are mostly looking out for themselves? (0-10)

### satis\_gov

- (B26) Now thinking about the [country] government, how satisfied are you with the way it is doing its job? (1-10)

### vote

- (B11) Some people don't vote nowadays for one reason or another. Did you vote in the last [country] national election in [month/year]? (Yes or No)

### tv

- (A1) On an average weekday, how much time, in total, do you spend watching television?

### newspaper

- (A5) On an average weekday, how much time, in total, do you spend reading the newspapers?

### internet

- (A7) Now, using this card, how often do you use the internet, the World Wide Web or e-mail whether at home or at work - for your personal use?

**religious**

- (C21) Regardless of whether you belong to a particular religion, how religious would you say you are? (1-5)

**public**

- (F32) Which of the types of organisation on this card do/did you work for?
- 01 Central or local government
- 02 Other public sector (such as education and health)
- 03 A state owned enterprise

**private**

- (F32) Which of the types of organisation on this card do/did you work for?
- 04 A private firm
- 05 Self employed

**Social Economic Status (male, age, education, region)**

## 참고문헌

- 강윤희(2012) 「러시아 체제전환: 민주화 이행과정에서의 시민사회의 역할과 한계」, 『슬라브학보』 27:1, 181-210.
- 김병준(1998) 「시민평가제의 기능과 도입방안」, 『21세기를 여는 민선2기 지방자치의 역할과 임무』, 서울시정개발연구원 6주년 기념세미나 보고서, 3-20.
- 김선래(2010) 「러시아의 전통적 정치문화와 주권민주주의」, 『Russia and Russian Federation』, 1(단일호), 41-45.
- 김혜정(2012) 「지역사회 시민의 참여활동과 영향요인」, 『한국행정학보』 46:2, 213-240.
- 류진숙(2010) 「러시아 민주주의 공고화와 정치과정」, 『중소연구』 34:1, 207-234.
- 류태건(2010) 「정치효능, 정치신뢰, 정치참여의 이론과 현실」, 『지방정부연구』 14:2, 243-267.
- 박기관(2009) 「지방정부 공공서비스의 고객만족도 평가 및 결정요인 — 인제군 노인복지 행정서비스를 중심으로」, 『한국정책연구』 9:2, 229-251.
- 박수현(2010) 「탈공산주의 체제전환기 국가와 시민사회: 러시아의 경험」, 『세계정치』 13, 157-189.
- 박찬욱(2005) 「한국인 정치참여의 특징과 결정요인: 2004 년 조사결과 분석」, 『한국정치연구』 14:1, 147-193.
- 박희봉(2006) 「시민참여와 로컬 거버넌스」,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0:2, 1-23.
- 박희봉 · 이희창 · 조연상(2003) 「우리나라 정부신뢰 특성 및 영향 요인 분석」, 『한국행정학보』 37:3, 45-66.
- 박희봉 · 이희창 · 김종래 · 유재원 · 한인희 · 차일근 · 김철수 · 박병래(2005) 「사회자본과 정치참여: 한 · 중 · 일 3국 수도권주민의 의식조사분석」, 『한국정책과학학회보』 9:4, 547-575.
- 서성아(2013) 「행정서비스만족이 정부지지에 미치는 영향의 한계」, 『한국행정학보』 47:1, 47-67.
- 송건섭(2003) 「지방정부의 공공서비스 평가시스템 구축: 객관적·주관적 평가 기준의 통합시스템을 중심으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13:4, 185-207.
- 유석춘 · 장미혜(2002) 「사회자본과 한국사회」, 『사회발전연구』 8, 87-125.
- 이영수 · 이재신(2009) 「사회자본과 정치참여 기대감이 정치참여 의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정치연구』 18:1, 1-20.

- 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학보』 53:5, 316-339.
- 이영형(2009) 「러시아의 민주주의 발전과정과 주권민주주의 자극요인」, 『한국과 국제정치』 25:2, 173-204.
- 이재신·이민영(2011) 「정치정보 습득 채널, 정부신뢰, 사회적 영향이 대학생들의 정치참여에 미치는 영향」, 『언론과 사회』 19:3, 77-111.
- 임도빈·정지수·신혜영(2012) 「러시아의 행정개혁: 제도화, 탈제도화와 재제도화의 관점에서」, 『러시아연구』 21:1, 231-266.
- 장덕준(2007) 「현대 러시아 정치문화의 탐색 — 모스크바 시민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41:1, 145-167.
- 장덕준·신동혁(2008) 「현대 러시아인의 국가와 시민사회에 대한 인식: 모스크바 시민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집』 48:1, 193-219.
- 장세호(2012) 「러시아 민주주의의 퇴행 극복 가능성에 대한 일고찰」, 『러시아연구』 22:1-1, 155-182.
- 조현석(2009) 「시민참여의 유형평가」, 『시민참여와 거버넌스』, 서울: 도서출판 오름, 45-72.
- Ho, 알프레드·임도빈(2012) 「정부경쟁력(Government competitiveness)의 개념 정립」, 『행정논총』 50:3, 1-34.
- Barnes, Samuel H. and Max Kaase et al(1979) *Political Action: Mass Participation in Five Western Democracies*, Beverly Hills: Sage.
- Becker, L. B. and D. C. Whitney(1980) "Effects of media dependencies: Audience assessment of government," *Communication Research*, 7/1, pp. 95-120.
- Booth, John H. and Mitchell A. Seligson(eds.)(1978) *Political participation in Latin America*, New York: Holmes and Meier.
- Carter, N., P. Day and R. Klein(2002) *How organizations measure success: The use of performance indicators in government*, Routledge.
- Craig, S. C.(1980) "The mobilization of political discontent," *Political Behavior*, 2/2, pp. 189-209.
- Diamond, L. J.(1994) "Toward democratic consolidation," *Journal of democracy*, 5/3, pp. 4-17.
- Fish, M. Steven(1999) "Postcommunist Subversion: Social Science and Democratization in East Europe and Eurasia," *Slavic Review*, 58/4, pp. 794-823.

- Fornell, C. and N. M. Didow(1980) "Economic constraints on consumer complaining behavior," *Advances in Consumer Research*, 7/1, pp. 318-323.
- Fukuyama, F.(1999) *The great disruption: Human nature and the reconstruction of social order*, New York: Free Press.
- Giddens, A.(1990) *The consequence of modernity*,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 Gill, Graeme(2002) *Democracy and Post-Communism: Political Change in the Post-Communist World*, London: Routledge.
- Gujarati, Damodar, N.(2003) *Basic Econometrics*, McGraw-Hill Higher Education.
- Hirschman, A. O.(1970) *Exit, voice, and loyalty: Responses to decline in firms, organizations, and states*,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Huntington, Samuel P. and Joan M. Nelson(1976) *No Easy Choice: Political Participation in Developing Countries*,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김학준 역(1981) 『정치참여의 논리와 현실 — 개발도상국의 어려운 선택』, 서울: 일조각.
- Im, Tobin, Greg Porumbescu and Jung Ho Park(2012) "Internet, Trust in Government, and Citizen Compliance,"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Research*, online published.
- Inglehart, Ronald(1997a) *Modernization and Postmodernization: Cultural, Economic, and Political Change in 43 Societie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_\_\_\_\_ (1997b) "Postmodern: meniaiushchiesia tsennosti I izmeniaiushchiesia obshchestva," *Polis*, 4, pp. 6-32.
- \_\_\_\_\_ (1999) "Trust, well-being and democracy," in Mark E. Warren(ed.) *Democracy and Trust*, Cambridge University Press.
- Kampen, J. K., S. V. De Walle and G. Bouckaert(2006) "Assessing the Relation Between Satisfaction with Public Service Delivery and Trust in Government. The Impact of the Predisposition of Citizens Toward Government on Evaluations of Its Performance," *Public Performance and Management Review*, 29/4, pp. 387-404.
- Kelly, J. M. and D. Swindell(2002) "A Multiple-Indicator Approach to



- Municipal Service Evaluation: Correlating Performance Measurement and Citizen Satisfaction across Jurisdictions,"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62/5, pp. 610-621.
- Krishna, Anirudh(2002) "Enhancing Political Participation in Democracies What is the Role of Social Capital?,"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35/4, pp. 437-460.
- Lake, R. and R. R. Huckfeldt(1998) "Social capital, social networks, and political participation," *Political Psychology*, 19/3, pp. 567-583.
- Levi, M.(1996) "Social and unsocial capital: A review essay of Robert Putnam's Making Democracy Work," *Politics and Society*, 24/1, pp. 45-55.
- Loflin, K. T.(2003) *Bonding and bridging social capital and their relationship to community and political civic engagement*, A Dissertation of University North Carolina at Chapel Hill.
- Lyons, William E. and David Lowery(1989) "Citizen Responses to Dissatisfaction in Urban Communities: A Partial Test of a General Model," *Journal of Politics*, 51/4, pp. 841-868.
- McLeod, J. M., D. A. Scheufele and P. Moy(1999) "Community, communication, and participation: The role of mass media and interpersonal discussion in local political participation," *Political Communication*, 16/3, pp. 315-336.
- Milbrath, Lester W. and M. L. Goel(1977) *Political Participation — How and Why Do People Get Involved in Politics?*, Chicago: Rand McNally College Publishing Co.
- Miller, M. M., and S. D. Reese(1982) "Media dependency as interaction effects of exposure and reliance on political activity and efficacy," *Communication Research*, 9/2, pp. 227-248.
- Murray, M. A.(1975) "Comparing public and private management: An exploratory essay,"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35/4, pp. 364-371.
- Norris, P. (1996) "Does television erode social capital? A reply to Putnam," *Political Science and Politics*, 29/3, pp. 474-480.
- Perry, J. L. and L. Wise(1990) "The Motivational Bases of Public Service,"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50/3, pp. 367-373.

- Petukhov, V.(2006) "Political participation and civic self-organization in Russia," *Russian Social Science Review*, 47/6, pp. 4-22.
- Putnam, R. D.(1993) *Making Democracy Work: Civic Traditions in Modern Ital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 \_\_\_\_\_ (1995) "Tuning in, tuning out: The strange disappearance of social capital in America," *Political Science and Politics*, 27/4, pp. 64-83.
- \_\_\_\_\_ (2000) *Bowling Alone: The Collapse and Revival of American Community*, New York: Touchstone.
- Rainey, H. G. and B. Bozeman(2000) "Comparing Public and Private Organizations: Empirical Research and the Power of the A Priori,"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Research and Theory*, 10/2, pp. 447-469.
- Robinson, M. J.(1976) "Public Affairs Television and the Growth of Political Malaise: The Case of 'The Selling of the Pentagon',"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70/2, pp. 409-432.
- Roth, V. J. and L. Bozinoff(1989) "Consumer satisfaction with government services," *Service Industries Journal*, 9/4, pp. 29-43.
- Rusbult, C. E., I. M. Zembrodt and L. K. Gunn(1982) "Exit, voice, loyalty, and neglect: Responses to dissatisfaction in romantic involvemen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3/6, pp. 1230-1242.
- Sapsford, R., and P. Abbott(2006) "Trust, confidence and social environment in post-communist societies," *Communist and Post-Communist Studies*, 39/1, pp. 59-71.
- Sayre, W.(1953) "Premises of Public Administration,"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18, pp. 102-103.
- Shaffer, S. D(1981) "A multivariate explanation of decreasing turnout in presidential elections, 1960-1976,"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25/1, pp. 68-95.
- Solomon Jr., Peter H.(2008) "Law in Public Administration: How Russia Differs," *Journal of Communist Studies and Transition Politics*, 24/1.
- Stipak, B.(1979) "Citizen satisfaction with urban services: Potential misuse as a performance indicator,"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39/1, pp. 46-52.
- Teixeira, R. A.(1992) *The disappearing American voter*, The Bookings Institution.

- Tocqueville, Alexis de(1984) *Democracy in America. renewed by Richard D. Heffner*, New York: Penguin Books.
- Van Ryzin, G. G.(2004) "Expectations, performance, and citizen satisfaction with urban services," *Journal of Policy Analysis and Management*, 23/3, pp. 433-448.
- Verba, Sidney and Norman Nie(1972) *Participation in America: Political Democracy and Social Equality*, New york: Harper and Row.
- Verba, Sidney, Kay Lehman Schlozman and Henry E. Brady(1995) *Voice and Equality: civic voluntarism in American politics*,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Wooldridge, Jeffrey M.(2009) *Introductory Econometrics*, South-Western Cengage Learning.
- Yeich, Susan and Ralph Levine(1994) "Political Efficacy: Enhancing the Construct and Its Relationship to Mobilization of People,"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22/3, pp. 259-271.
- <http://ess.nsd.uib.no/ess/round5/>(검색일: 2013.10.15).

**Abstract****A Study on Influence Factors of Russian Civil Participation  
— Focusing on Government Satisfaction and Social Trust —****Im, Tobin · Jeong, Jisu · Kim, Yunho**

This research examines government satisfaction and social trust as the main influencing factors on civil participation of Russian citizens. In addition to these variables, characteristics of media usage as well as engagement in public organizations are also considered as influence factors. Recently, Russian citizens have low level of trust and satisfaction toward their government, and government and democracy indicators in Russia found in many international indices are also very low. The main research question of this study is whether this current situation of distrust and dissatisfaction toward government may lead citizens to participate in society more actively. The analysis based on Russia in European Social Survey (ESS) showed that the higher the social trust is, the more active civil participations there are. On the contrary, high government satisfaction led to lower civil participation. Also, access and exposure to information through watching television, reading newspapers and using internet also turned out to be influential to the civil participation.

**논문심사일정**

논문투고일:	2013. 10. 15
논문심사일:	2013. 11. 1 ~ 12. 3
심사완료일:	2013. 12. 4